

허균과 매창의 시조*

김명희**

〈국문초록〉

허균과 매창은 사대부와 기녀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러나, 허균은 매창을 여성 문학인으로 재능을 인정하고 평생 詩友로 존경하며 사랑한 사이였다. 허균은 천재 시인, 혁명가, 이상향을 꿈꾸는 평등주의자여서 여성과 서얼을 인간으로 대접하려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허균이 매창을 중국에 기녀시인 설도에 비견하고 매창을 조선의 최고 기녀시인으로 손꼽는 데는 매창 시의 한 특성이 있다고 본다. 그녀의 시조는 상실감에 가득한 비애 가운데서도 임과의 재회를 꿈꾸는 소망의식이 가득한 시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녀는 사대부와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등거리 사랑을 추구하였고 그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성적 욕망의 대상인 기녀 신분이면서도 성이 뒤로 앉은 貞操 어린 여성으로 자리 잡아 사대부들의 존경과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시인이었다. 허균의 폄하 발언으로 얼룩진 평가를 재평가하고, 매창의 시가 비애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의식으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핵심어 : 소망의식, 상실감, 비애, 등거리 사랑, 여성 의식.

* 이 논문은 2004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강남대

1. 들어가며

허균(1569-1618)은 조선조에 奇人으로 꼽히는 문사 가운데 하나로, 그의 나이 25세(선조 27)에 문과에 합격하고 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는 총명함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다. 허균은 넘치는 재주와 함께 문장에 능하였으나 특유의 자유분방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가뻛고 인륜을 어지럽힌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수적인 유생들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권세가들의 눈에 거슬리기 일쑤였고, 번번이 파직을 당하는 좌절도 맛보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아마도, 당시의 선비들이 유교를 국시로 삼는 국가의 이념에 투철하여 달한 의식을 보이는데 반해, 그는 도교와 불교 사상에 심취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사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허균은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여느 조선조 선비들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철학적 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최초의 국문 소설을 쓴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파격적인 성격은 여성, 혹은 여성 시에 대한 인식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허균의 저서인 『학산초담』과 『성소부부고』에는 그의 이러한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유난히 여성 시에 가치를 두며 높게 평가하는 허균의 비평의식과 문학적 동지애로 교유하며 지냈고, 그의 비평 인식에서 조선 제일의 여성 문학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매창과의 관계를 통해 조선조 선비와 기녀의 시적 담론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허균의 의식과 매창의 작품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서 사대부와 기녀의 관계를 조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허균과 그의 여성 시 인식

1)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 허균

현전하는 기록을 보면 허균에 대한 평가는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실록』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는 기생들과 노는 것을 즐겨 황해도 사로 있을 때 서울 娼妓들을 데려 갔다고 해서 파직을 당하고 창기 관아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였으므로 황해도 관리와 백성 가운데 그를 비웃거나 꾸짖지 않은 사람이 없다¹⁾고 적혀 있다. 실제로도 그는 많은 기녀들과 거리낌 없이 생활한 듯하다. 義州에서 '잠자리를 한 기생이 12명이나 된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²⁾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유희나 쾌락을 위함은 아닌 듯하다. 뒤에서 살펴 볼 매창과의 관계를 볼 때 그는 기생들을 자신의 문학과 풍류속의 한 개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사대부들에게는 혹평을 당했으나, 실제로는 뛰어난 문장가의 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허균이 뛰어난 문장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집안의 내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의 문벌은 그 당시 대단한 권력가요, 문장가여서 양친 許씨 家風이 곧, 조선의 文風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균은 아버지 許曄, 형인 許箴, 許箴, 누이 許蘭雪軒에게서 家學으로 학문에 접하고 스승인 유성룡과 삼당시인 李達에게서 시와 문장을 배운 신동이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황해도사, 좌참찬을 지냈으며, 〈豪民論〉, 〈遺才論〉을 비롯하여 〈蓀谷山人傳〉, 〈蔣生傳〉 등과 함께 『惺叟詩話』, 『성소부부고』, 『鶴山樵談』, 『국조시산』, 그리고 〈홍길동전〉 등

1) <선조대왕실록> 권120, 기해년(1599) 12월 9일.

2) 허균, <성소부부고> 권19, 己酉西行紀

을 지음으로써 시화 비평선과 정치사상 철학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저술한 시인이며 정치가며 사상가이지 소설가였다.

최근 북경에서 발굴한 『조선시선』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최초로 편찬하여 전파된 조선 시집³⁾으로, 허균이 외운 조선 시인들의 시를 허균이 직접 필사하여 중국 사람인 오명제에게 전해 주어 간행된 시선집이다. 이 책의 인기가 높아져 중국에서 조선인의 시를 읽는 것이 대유행이 되었고, 조선에 오는 중국 사신마다 『조선시선』을 베껴 가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자 중국에서 앞다뒀 『조선시선』을 필사·간행하여 중국 낙양의 종이 값이 오를 정도였다고 했다. 말하자면 『조선시선』은 최근 중국, 일본 및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韓流 열풍의 원조 격인 셈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허균이 국문 필사로 음을 달아 준 페이지도 있어 조선인의 글인 훈민정음을 최초로 중국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호방하고 자유분방한 그의 사상은 종교 분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수적인 성리학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양명학과 함께 서구의 종교인 천주교 서적까지 들여오는 대담성도 보인다.⁴⁾ 그러면서 누이 난설헌과 함께 도교를 신봉하여 〈遊仙詞〉를 지어 '선계에 몸담은 인간'이라고 자처하며, '초월자의 모습'을 보이고, 〈宮詞〉를 지어 '궁 안의 비밀스러운 일을 세상에 알려 조선 시대 문단에서의 異端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또 신분 계층을 파괴하고 서얼들과 공공연한 교류로 인해 불우한 운명을 재촉하게 되는데 그것은 훗날, 서얼들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혁신 사상의 기본이 되고 〈홍길동전〉과 〈손곡산인전〉에서 서얼도 인재라면 써야 한다는 '인재론'을 펼치는 계기가 된다. 그가 서얼 차별

3) 오명제 편, 기경부 교주, 『조선시선』, 중국요령민족출판사, 1999

4) 홍학회, 「여성 인식의 측면에서 본 허균의 개혁 사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6, 2003, 292-293쪽.

철페를 운운하고 인재론을 펼치게 된 데는 서얼 출신의 스승인 손곡 이 달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본인이 꿈꾸는 새로운 이상 세계를 향해 실제 행동으로 옮겨 서류들과 모의하여 혁명을 꾀하다 이상향의 나라에 근접하지도 못한 채 50세의 역모 죄로 陵遲處斬을 당한다. 이러한 역모 죄는 단지 사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조선 문단에서 허균과 난설현의 평가가 貶下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허균은 ‘천지간의 괴물⁵⁾로 ‘사람이 아닌 여우나 뱀이나 쥐일 것⁶⁾이라는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치부되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의 누이 난설현 역시 ‘그녀의 시가 대부분 남의 시를 훔쳐온 竊竊이다, 여성의 덕인 婦德이 없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허균은 누이 난설현과 조선 선조조의 여류 시인인 이옥봉의 시를 두고, ‘매우 맑고 단장하는 여인의 말투가 아니다⁷⁾’ 평을 높게 평가하고, 그 외에 정문영의 아내, 신순일의 아내, 양사언의 아내, 정철의 첩실, 금가(여종) 등을 들어 문장을 잘하는 여성이라는 詩話에서 ‘우리나라 부인 가운데 시를 잘 짓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이는 음식 격정이나 할 뿐이지 그 밖의 문장은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⁸⁾’ 라고 하였다. 그 말뜻의 의미는 여성들도 문장을 제대로 배우기만 했으면 더 잘할 여성 시인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허균이 여성들에게는 문장을 가르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곧, ‘여성과 서얼의 차별이 같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성들의 시가 훌륭함을 일깨우며 선비들의 시평에 있어서 선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누이 허경번과

5) <광해군 일기>, 광해군 10년 윤사월 29일, “許筠 天地間 怪物也”.

6) 유몽인, <어우야담>, “此子非人也, 其狀亦不必是狐狸蛇鼠等物精也”.

7) 허경진, 『허균의 시화』, 민음사, 1982, 55쪽.

8) 위의 책, 103쪽.

기녀 매창(계생), 趙璠의 소설인 이옥봉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허균이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조선 시대에 앞서가는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의 사대부 중에서 허균만큼 여성의 시를 인식하고 여성의 시를 제대로 평가해 준 남성은 거의 없었다. 그는 명망 있던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종의 시문까지도 열거하며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문학인이며 평등주의자라 할 수 있다. 허균은 현대적 관점에서 평해 본다면 다정다감한 시인이며, 사회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경세가요 사상가였다. 그럼에도 그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은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간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순 덩어리로 보이는 사회와 타협하지 못하고⁹⁾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허균의 사상은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 새로운 평가를 받고 부활하게 된다. 허균의 문학과 인간됨이 새롭게 인식되듯이 허균의 여성 시 의식을 살펴보고, 그 여성 시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허균의 여성 시 비평의식

허균의 『학산초담』에는 허난설헌에 대한 글이 몇 편 나온다. ‘백광훈과 허초희’, ‘허봉과 허초희의 시참’, ‘허초희의 글재주’, ‘허초희의 가사’, ‘허초희의 〈보허사〉’ 등이 그것이다. 허균은 누이의 글을 사랑했고, ‘누이의 시가 조선 최고’라는 것을 중국에 처음으로 알렸다. 허균은 백광훈의 시 〈홍경사를 지나며〉를 소개하면서 난설헌의 시 〈感遇〉에 ‘최경창, 백광훈이 盛唐의 시법을 익힌 시인이며 시인의 가난함을 노래해 시인으로 살기 힘들다’는 〈감우〉시를 소개하여 난설헌 시가 삼당시인들의

9)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105-113쪽.

“나의 성품이 더럽고 웅졸하여 영성하고 거칠어 기교를 부릴 줄 모르고 아침 하지도 못한다.”

영향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 외, 〈강남곡〉, 〈빈녀음〉, 〈채련곡〉 등 약부시 중에서 난설헌의 대표시를 소개 비평하며 형인 허봉이 갑산에서 귀양 가기 전에 ‘꿈속에서 지은 시’에서 죽음을 예언했듯이 누이 난설헌도 詩讖에 의해 운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누이 난설헌의 운명과 시를 결부시켜 평한 것이다. 결국 ‘허초희의 글재주’라는 대목에서 그는 유선시를 통해 난설헌은 중국의 이태백, 이장길을 넘어선 글이라는 대단한 찬사¹⁰⁾를 하며 누이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누이의 문학을 비평의 프리즘을 통해 조선 최고의 여성시인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앞장선다.

그 다음은 허균과 10년간의 우정을 존속한 기녀 매창에 대한 평가다. 〈조관기행〉에는 허균과 매창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축년 1601년 7월에 부안에 이르러 객사에 머물러 있는데 매창이 거문고를 끼고 들어와 시를 읊조렸다. 얼굴은 예쁘지 않았지만 재주와 정취가 있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시를 주고받았다. 저녁이 되자 조카를 침실로 들여보냈다.

매창은 그 당시 이귀의 애인이었다. 그러므로 허균은 매창이 비록 기녀라도 동침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재주에 감복하여 시 벗으로 받아들여 10여 년간 각별한 우정을 지속했다.¹¹⁾ 이 일화에서 허균이 기생과 놀고 자는 것을 즐기기는 해도 예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외모를 떠나 시문에 능한 재주를 높게 평가하는 ‘문학 제일주의에 입각한 여성주의 시각’을 지닌 사대부¹²⁾라는 점은 그 당시 사대부들과는 차별을 이룬다. 어찌 보면 그가 여성을 대하는 관점은 외모나 신분 계층이 아니라 재주의 유무에 있다고도 하겠다.

10) 허균, 〈학산초담〉, 137쪽.

11) 허균, 『성소부부고』 권18, 「漕官紀行」.

그 다음으로 허균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여성은 이옥봉이다. “이옥봉은 趙瑗의 첩이다. 옥봉은 시가 맑고 굳세어서 얼굴 단장이나 하는 부인들의 말투가 아니다.”라며 옥봉 시의 기개와 품격을 매우 높여 평가하고 있다.¹²⁾ 더욱이 스승인 이달 시와 견줄으로써 옥봉의 시를 극찬하였다.

“이옥봉이 난설현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조백옥의 첩이며 분단장의 태도가 없고 이익지의 시와 같은 가락이다”라는 추켜세움이다.¹³⁾

그 외에 우리나라 여성 시인 가운데 20여 명을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경번의 ‘하늘 글 숨씨’와 이옥봉의 ‘문장의 대가다운 면모’와 士人 鄭文榮의 아내 시인 〈代良人贈人〉을 꼽았다. 이어서 생원 신순일의 아내는 문장과 시를 잘하고, 楊府使의 첩의 〈秋恨〉과 송강의 첩, 琴哥라는 여종의 글까지 두루두루 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허균의 비평의식에서 문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신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대부들의 여성 폼하 시 비평의식과는 매우 다르며, 비록, 여성의 시라도 올바르게 평하려는 여성주의 비평가의 면모임을 각인시켜 준다. 허균은 조선 여성들의 훌륭한 시들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文風이 성하였다고 했고 당나라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으니 나라의 커다란 盛事라 했다.¹⁴⁾

한편, 사대부들이 “허균이 도덕적으로 문란하여 인간이 아니다”라는 평과는 달리 형인 허봉은 오히려 허균을 애처가라고 놀리기도 하였다. 허균이 처가에 옮겨가 앓고 있었을 때 밖에도 나오지 않고 처가에만 머

12) 허경진, 앞의 책, 55쪽.

13) 이옥봉의 시 “첩의 몸도 왕실의 손녀라 이곳 접동의 울음은 차마 듣기 어렵구료”, 이달의 시 “동쪽 바람의 두견새의 쓰라릴 울음은 서쪽으로 지는 해 노산군의 무덤을 차갑게 하네”와 같다는 것이다.

14) 허경진, 앞의 책, 103쪽.

물러 있는 것을 보고 형 허봉은 애처가인 허균이 일부러 종기가 나서 집에만 있다는 시¹⁵⁾를 써서 허균을 희롱하였다. 그러한 형에 대해 허균은 ‘형님의 풍류와 해학이 이와 같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애처가로서의 허균의 면모와 함께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동시에 짐작하게 한다. 애처가로서의 허균의 면모를 그의 인간 됬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비록 기녀와 첩실을 거느린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때는 퇴폐적인 인간상의 전형이 될 수 있겠으나, 조선조 사대부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일부분일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또 아내에 대한 지극한 정을 보인 허균은 시대의 이단이일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다.

허균의 이러한 면모는 매창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매창은 한시와 시조에 익숙한 조선조의 여류 시인이다. 난설헌은 사대부가의 여성이라 시조 장르가 없는데 반해 매창은 사대부가의 남성들과 어울리는 기녀이므로 시조와, 한시를 두루 이용하여 그들과 교류하며 수작한다. 한시를 통해 또는 노래 곡조인 시조를 통해 조선의 시인으로 살아남기, 특수계층이며 하층민인 기녀로 생존하기, 한 남자의 애인으로 살아가기 등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매창의 인간됨과 그 당시 기녀로서의 사대부와의 시조를 매개로 한 남다른 애정 의식과, 남성들과의 性差에 따른 등거리 사랑, 허균과 시 벗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매창과 매창의 작품에 대한 고찰이자 아나가서는 기녀와 사대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5) “天意憐君慕太王 故教雙脚遍生瘡 隣家咫尺猶嫌遠 何況蘋洲十里長”.

3. 매창 시의 한 특성

1)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녀

조선시대 기녀 제도는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禮樂¹⁶⁾ 정치와 신분제, 가부장제 등과 같은 사회 체제가 맞물린 복합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식 기록물 속에서 기녀는 궁중의 의례나 宴享, 양반 남성들의 연회에서 樂·歌·舞를 연행하는 '女樂'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녀는 비공식적인 성적 봉사의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녀는 전근대 시대 藝人과 매춘부의 모호한 지점에 자리하게 된다.¹⁷⁾ 이러한 기능적 기녀의 역할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대부분의 기녀는 사대부나 변경 지방 군사들을 위한 매춘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기생이 창기의 개념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유교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창기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었다. 그러나 만약 창기를 없애게 되면 관리나 사대부들이 옹지 못한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여자를 범하게 되어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세종대 許稠⁸⁾의 주장에 의해 창기제도는 존속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수가 더 증가하였다.¹⁹⁾

16) 禮樂 : 예법과 음악.

17) 서지영, 「조선시대 기녀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월인, 2002, 291쪽.

18) 許稠 : 이조 세종때 문신으로 자는 仲通 호는 敬庵, 시호는 文敬, 본관은 河陽이다. 陽村 權近에게 학문을 배우고, 1385년 17세에 진사, 19세에 생원에 각각 합격하였다. 司憲 雜瑞, 完山判官, 吏曹正郎을 지내고 예조참의에 이르러 疏를 올려 학당을 세웠다. 朝廟의 儀禮와 모든 喪制를 참작하여 새법전을 만들었다. 세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서가 되어 對馬島人의 출입을 제안하고 불법입국으로 안치되어있는 왜인을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으며, 진하사로 명나라에 출입하는 등 외교적 활약이 많았다.

조선조 여인들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순종과 인내만을 미덕으로 여겼으니 <內訓>에 나타난 여성의 '幽閑貞靜한 자태와 믿음성 있는 절개'가 있는 청렴한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²⁰⁾ 이와 아울러 여성 교육에 대해서도 '부인은 함부로 詩詞를 짓거나 밖에서 들은 말은 전하지 말 지어다'라 하여²¹⁾ 일체 글을 배우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여자가 글자를 알면 도리어 집안의 규범을 가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²²⁾ 여자에게 있어서 才보다는 德이 우선이었다. 양반 사대부들은 정치에게는 적자 생산자로서의 의미를 중시하는 반면 기녀들에게서는 성적 또는 감정적인 충족을 얻고자 하는 이중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³⁾ 그런 만큼 기녀들은 특수한 신분적 조건 때문에 규방의 여성들에 비해 도덕규범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인간의 감정 표현을 문학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양반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규방에만 있고 안방문화에 속해 있는데 반해, 기녀들은 규방에 머물며 다수의 사대부를 대할 수 있어서 자연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고, 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²⁴⁾

또한, 여성들이 시를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조선사회의 규범에서도 기녀들은 특혜를 누렸다. 지식층 남성들과의 접촉은 그들에게 문학행위의 길을 열어 주었다.²⁵⁾ 기녀들이 유교 윤리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19) 이순구,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215-216쪽.

20) 金咸得, 「朝鮮朝女人의 敎訓書 <內訓>의 近代의 考察」, 《國文學論集》 제12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4쪽.

21) 李德懋, <士小節> 卷之七.

22) 李能和, 『朝鮮女俗考』, 韓國學研究所, 1977, 132쪽.

23) 이순구, 앞의 책, 1999, 217쪽.

24) 김명희,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 태학사, 1997, 151쪽.

25) 吳淳子, 「李梅窓詩文學研究」, 東國大 教育大學院 1984, 2쪽.

것은 천민 출신의 여성으로 당시 사회가 인권적 대우를 허용하지 않은 만큼 윤리적 비판도 받지 않아, 그 윤리를 양반 귀족 남성들과 함께 공범 할 수 있는 기녀신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며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기녀들과 문인들과의 교유는 연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서도 매창과 춘은 유희경과의 연정생활은 대표되는 것이며 풍류객과의戀情이 제재가 되어 기녀들의 시상은 주옥같은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²⁶⁾ 기녀들이 정조를 지키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남성이 따로 있었던 것이 조선조에 기녀 문학에 나타난 특질이다.²⁷⁾ 황진이와 소세양, 매창과 유희경, 홍시유와 매화, 최경창과 홍랑이 그 대표적이다.²⁸⁾ 이러한 유명문사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기녀들에게 사랑이나 임은 가장 보편적인 시적 제재가 되고,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공간적 거리감이 이별의 한이나 그리움의 주제로 표출된다.

기녀들은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고향을 떠난 나그네 삶을 많이 살아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서적으로도 뿌리 없는 삶을 영위한다. 기녀는 같은 천인이면서도 婢와는 달리, 遊食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婢들은 물론이고, 一般 良家女들에게도 妓女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⁹⁾ 그러한, 기녀는 사대부들에게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신들은 남성들과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통해서 내면적,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한 삶에서 얻어진 체험과 애정 행각이 시조로 나타난다. 그러한 기녀들만의 시조놀이가 사랑에 얽힌 일화와 더불어 유혹에 탐닉하며 질편한 성적 욕망의 시조를 엮어 내

26) 김명희, 앞의 책, 153-154쪽.

27) 김명희, 『기녀문학에 나타난 특질』, 《시조학논총》.

28) 박을수, 『시화: 사랑 그 그리움의 샘』, 아세아문화사 1994, 101-167쪽.

29) 이남희, 『女流古時調研究』, 영남대 대학원, 1982, 16쪽에서 재인용.

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성적 욕구를 억압하며 절개와 정조를 지키겠다는 모순적인 삶을 지향하는 기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한 여성이 매창이다. 매창은 비록 기녀이지만 정조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한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낸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2) 매창 시조에 나타난 상실감과 소망 의식

1668년 12월에 개암사에서 개간한 <매창집 발문>³⁰⁾에는 매창 (1573-1610)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매창은 癸酉生으로 이름은 癸生·桂生이라 하였으며, 처음에 기생이 되어서는 蟾初라고 불리기도 했다.³¹⁾ 부안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부친인 아전 이탕종에게서 한문을 배웠는데 워낙 재주가 뛰어나 시문과 거문고를 곧 익혔다고 한다.³²⁾ 계생은 자라면서 이름을 香旻, 天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호를 스스로 매창이라 지어 불렀으며, 부안지방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유희경·이귀·허균 등과 같은 당대의 뛰어난 시인·묵객들과 唱酬하였다. 그녀는 얼굴이 절색은 아니었지만, 시와 거문고에 능해서 그 소문이 서울까지 퍼져 있었다. 매창은 오직 촌은 유희경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시와 거문고로 그리움과 한을 달래면서 시작에만 힘썼다. 비록 미천한 기생이지만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절개를 지키다가 38세의 짧은 생

30) 許米子, 『朝鮮朝女流詩文學全集 1』, 太學社, 1988.

계생의 자는 천향이요, 스스로 호를 매창이라 하였고, 현리 이탕종의 딸이다. 만력 계유년에 나서 경술년에 죽으니 겨우 38년을 살았다. 평생 노래 부르기와 시 읊기를 잘했고 그가 지은 시 수백 여수가 있어 한때 인구에 회자되더니 그러나 지금은 흩어져 없어지고 승정 후 무신년 10월 일에 아전들이 외우며 전하던 각체 58수를 얻어 개암사에서 목판에 새긴다.

31)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한남서림, 1927, 118쪽.

32) 許米子, 「李梅窓論」, 『古時調作家論』, 白山出版社, 1986, 254쪽.

을 마친다.

기녀 매창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김지용은 <매창문학연구>³³⁾로 매창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매창 생애의 再構를 보여 줌과 아울러 劉希慶과의 관계를 추적하여 매창 문학의 특질을 밝히었으며, 全元範은 <매창연구>에서 副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생애와 한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³⁴⁾ 문선지는 <매창 한시의 이미지분석>에서 작품 속의 다양한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매창 문학의 특질을 자연미 그 자체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뛰어난 기교를 구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영이는 <매창 문학 연구>에서 그동안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매창집》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허미자의 <이매창 연구>는 매창 문학에 관한 기존의 자료가 총망라된 단행본이다. 서지학적 접근으로는 각 이본에 따른 작품의 제목 및 내용의 차이를 일일이 대조, 비교하고 있으며, 여류문학사에 있어서의 매창의 위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학회지, 학위논문, 저서에 이르기까지 언급함으로써 자료집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매창을 '규원의 고독과 한을 시와 거문고로 달래면서 평생 춘은 유희경만을 사랑한 여인'으로 평가한다. 悲戀의 文學에 머물지 않고 신분에서 오는 현실적 질곡을 문학적 표상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 것이 매창 시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또한, 매창은 天性이 아름다운 서정 시인으로 신분의 비애를 초극한 그녀의 격조 높은 시 세계는 여타 여성시인들에게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질로 본다. 매창은 기녀이면서도 기녀의 범주를 넘어서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비애를 우아한 예술미로 승화시켰고, 자연 관조의 문학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최대의 찬사를 한다.³⁵⁾

33)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서울首都女師大, 1974, 1-44쪽.

34) 전원범, 「매창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매창은 많은 사대부들과 교류하였지만, 그들의 성적 대상이 아닌 시 벗으로 존재하였다. 그녀는 사대부들과 등거리 사랑을 나누었는데, 촌은 유희경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허균과는 문학과 음악으로 평생을 서로 존중하며 교류하는 사이였다. 十年知己라는 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문화와 문학이 바탕이 된 사랑법이기 때문이다. 이귀와는 애인사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부안 부사 이귀와 그 고을에 있는 가녀 매창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인연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기녀 신분으로 만난 서우관, 윤씨 성을 가진 현감 등이 있다.

매창은 기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시로 표출하는 한편 자신들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천한 사랑 법을 지적하기도 한다.

平生恥學食東家	남의 밥 얻어먹는 일 배우기 부끄러워
獨愛寒梅映月斜	홀로 달빛에 어리비친 寒梅를 즐긴다
時人不識幽閑意	세상 사람들 유한한 뜻 알지 못하고
指點行人枉自多	행인들 손가락질 하며 멋대로 들고 나누나.

《梅窓集》〈次過客韻〉

비록 미천한 기생이지만 寒梅처럼, 梅窓에 비친 달빛처럼 고고히 살아가려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곧, 사내들이 자신의 이러한 뜻인 '貞操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제 멋대로 들고나고, 오고가고 한다는 '기녀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도 고달픈가에 대한 노래다. 매창은 '妓房의 고독과 한'을 시와 거문고로 달래며 촌은 유희경만을 사랑하였는데, '悲戀의 文學'에다 기녀 신분에서 오는 '桎梏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출한 것은 매창 문학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35) 정광순, 「매창한시문학연구」, 숭실대 대학원, 1989, 1-2쪽.

그렇다면 매창의 또 다른 문학 양식인 시조를 대상으로 그녀가 시조를 통해 吐露하고자 하는 시 의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매창이 사대부들과 시 벗으로 사랑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梨花雨 훗날리제 울며 잡고 離別한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을 생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ㅎ노매
 <진본청구영언 367>

계랑 매창은 당대의 대시인 유희경과 진정 사랑하는 사이였다. 촌은 이 서울로 상경한 후 소식이 끊기자 이 시조를 지어 부르며 평생 수절했다.³⁶⁾ 배꽃이 떨어지는 봄날, 이별한 채 살고 있는 나와 임의 거리, 그 거리는 천리에서 꿈에서나 볼까 말까 하는 잡히지 않는 거리다. 매창은 이런 애상의 슬픔을 시조로 가장 잘 토로한 여성 시인이며 기녀다. 시경에 나오는 시란 모름지기 ‘哀而不悲’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접해 있다. 기녀들의 밤이 언제나 불면으로 점철되는 것은 아니다.³⁷⁾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꾸어야 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기녀들은 꿈꾸는 밤을 기대한다. 매창도 비까지 흠뻑리는 밤에 꿈이라도 꾸어 천리에 떨어진 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靑鳥야 오도괴야 반갑도다 님의 消息
 弱水三千里를 네 어이 건너온다
 우리의 萬端情懷를 네 다 알가 노라
 <최남선본 청구영언 903>

36) 『樂合』에 “桂娘 扶安名妓 有梅窓集 以村隱劉希慶所昞 劉上京後 頓無音信故 作此歌守節”라는 기록이 보인다.

37)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밤의 공간」,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62-3쪽.

청조는 서왕모의 사신이다. 청조는 서왕모 여신선의 먹이를 실어 나르는 상서로운 새다. 이러한 청조에게 임의 소식을 알려고 시도하는 독백체에서 '매창의 애상'이 나타난다. 떠나면 곳 삼천 리 떨어져 있는 공간과 거리를 이어주는 것은 '청조' 뿐이다. 유희경만을 평생의 情人으로 생각했다는 매창의 '萬端情懷'의 의식은 情人과 떨어짐, 곧 공간의 거리감에서 비롯된 이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蒼梧山崩 湘水絶이라야 이 시름 업술 거슬
九疑峯 구름이 가지록 새로왜라
밤중만 月出東嶺하니 님 뵈은 듯허여라
〈이희승본 해동가요 9〉

임과 내가 떨어진 공간의 방해물은 창오산 봉우리와 상수다.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가 끊어져야 매창의 시름이 없어지는데 구의봉 구름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많이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靜的인 산봉우리와 動的인 상수의 흐름이 방해물이며 구의봉 구름을 뚫고, 밤중만 살짝 비치는 달빛만이 나와 임을 매개해주는 길잡이다. 매창은 이러한 공간적 거리를 구름과 달에 의지해 情人과의 사랑을 지속하려는 간절함을 보인다.

기력이 손이로 잡아 情드리고 길뜨려서
님의 집 가는 길을 歷歷히 ㄱ룻쳐 두고
밤중만 님 생각 날제면 消息 傳케 허리라
〈병와가곡집 548〉

소식을 전한다는 철새 기러기를 산 채로 붙잡아 길들여서 임의 집으로 가는 길을 똑똑히 가르쳐 외롭고 쓸쓸한 밤에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매창의 소망 의식이 담겨 있다. 기녀들은 임과 기약도 없이 이별을 한

채 외로운 삶을 유지해야만 하고 매창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正室이 될 수 없는 매창의 태생적 한계는 임이 찾아 주어야만 비로소 임을 볼 수 있는 수동적인 여성이다. 폐쇄된 기방에서 한 밤중에도 찾지 않는 임을 원망하지 않고, 기러기를 매개로 소식이나 전하고자 하는 매창의 상실과 소망이 함께하는 空闊의식이다. 매창은 매개체인 기러기에 매달려 촌은의 사랑을 확인하여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相思病으로 숨을 거둔다.

울며불며 잡은 사미 떨어지고 가들 마오
그대는 丈夫라 도라가면 잇건마는
소첩은 아녀자라 못내 잇썬네
〈남훈태평가 187〉

떠나려는 임의 소매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매창의 안쓰러운 모습이다. 매창은 丈夫인 남성 곧, 유희경과 아녀자인 자신의 사랑법이 확연히 다름을 표출한다. ‘그대는 장부라 돌아가면 곧바로 나를 잊고 새 사랑을 찾겠지만 나는 아녀자라 그대를 못내 잊지 못하고 다른 남자도 내 안에는 없다’는 중, 종장의 진술은 남녀의 성차에 따른 사랑을 확인시켜 여성의 애닦은 사랑을 더욱 가슴 저미게 만든다. 이 시조를 부르며 매창은 수척해지기 시작한다.

창 밧긔 감아쑥 막키라는 장스 離別나는 굼명도 막키웁는가
그 궁기 本來 물이 호으매 自古로 英雄豪傑들도 지혜로 못 막앗꼬 허물며
西楚霸王의 힘으로 能히 못 막앗신이 하 우은 말 마오
眞實로 장스의 말과 갓탈썬대 長離別인가 호노라
〈청구가요 65〉

매창이 쓴 시조 중에서 유일한 사설시조다. 매창은 한시뿐 아니라 사

설시조도 품격 있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 밖에서 '구멍 난 가마 솔 때우라'며 장사치가 소리를 질러대며 지나간다. 매창이 이별의 구멍도 메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별의 구멍은 본래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메울 수 없다는 장사꾼의 답변이다. 이별하여 생기는 가슴의 텅 빈 구멍은 영웅호걸들도 막지 못했고 특히 가장 힘이 세다는 항우도 막지 못한 일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장사꾼의 이론대로라면 이것은 곧, 지나간 이별을 뜻한다는 것이 매창의 지론이다. 촌은 유희경과의 긴 이별은 매창에게 있어 임진왜란이라는 7년 전쟁을 통해 영이별로 이어진다. 기녀 매창의 사랑은 누구도 메울 수 없는 상실감으로 차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창은 촌은 유희경을 생각하며 많은 시조를 부른다. 매창은 유희경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임의 부재'에 대해 한탄하며 슬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별의 한은 곧 상실감³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매창은 그러한 상실감에서 무기력하게 自暴自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임과의 재회를 꿈꾸며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기녀들은 남성의 장르인 시조를 전유함으로써 인해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폭로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³⁹⁾ 기녀의 시조 창작 행위가 풍류적인 현장이나 향락적인 행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매창의 시조는 空閨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매창은 꿈에서 임을 만나고자 하고, 청조에게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하고, 밤중에 뜬 달로 먼 거리에 있으나 임의 얼굴을 본 듯 가깝게 느끼고자 했으며,

38)

江南靑島斷 멀리 떠난 임께서 소식이 끊어지니
中夜獨傷心 밤마다 홀로 마음상하네
정광순, 앞의 논문, 32-33쪽.

39) 안지영, 「기녀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시조학논총』 제17집, 한국시조학회, 2001, 236쪽.

하물며 야생 기러기를 길들여 내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로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한다. 뿐 아니라, 너는 남성이라 돌아서면 나를 잊겠지만 나는 여성이라 남성인 임을 잊지 못하는 性差에 대해서도 간곡히 일러 돌아오기를 부탁하고, 이별의 한은 항우장사도 어찌 할 수 없다는 긴 이별의 한스러움을 적나라하게 사설체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매창의 시조는 사랑을 노래함에도 육욕적인 사랑 노래가 아닌 정숙한 품격이 있어 '기녀의 분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 본연의 질서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한다.

이렇듯, 임과의 이별은 매우 큰 상실감을 주었지만 매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도 함께 표출하고 있어 기녀들이 지나는 상실감의 시학에서 진일보한 소망의 시의식이라 할 수 있다.

3) 매창의 등거리 사랑

허균은 그의 기행문을 통하여 기녀와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문집에 의하면 그와 가까이 한 기녀 수만 해도 30 여명이나 되는데, 유독 매창과는 성적 교류 없이 십년지기로 사귀었다는 것은 허균과 매창 사이는 성적 욕망을 뒤로 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래와 거문고에 뛰어나고 성정이 절개가 있고 깨끗하여 세상 어지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음란한 일을 좋아하지 않은 매창의 절조 높은 품성에, 호방한 허균이지만 그녀를 기녀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허균은 매창을 누이인 난설현과 함께 女仙으로 칭하였다.⁴⁰⁾ 이렇듯 고매한 매창의 정절과 시적 재능은 매창이 죽은 후에, 허균으로 하여금 사대부 문풍에서는 매우

40) 허균은 중국의 女仙이나 歷史的 인물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겼다.

파격적으로 시를 지어 매창을 弔喪하게 하였다.

妙句堪摘錦
清歌解駐雲
偷桃來下界
竊藥去人群
燈暗芙蓉帳
香殘翡翠裙
明年小桃發
誰過薛濤墳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 펼친 듯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세계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가 무리를 떠났네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고
비취색 치마엔 향내 남아 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숭아 열릴 무렵에
그 누가 설도의 무덤을 지나가는가
〈哀桂娘〉

허균은 매창을 회고하며 제일 먼저 한 화두는 비단을 펼친 듯한 '아름다운 글귀'라 했다. 그 글귀는 노래가 되어 지나가는 구름도 멈추게 한다는 최대의 찬사다. 그녀는 선녀라서 복숭아를 훔쳐 먹은 죄로 인간에 귀양 왔다가 다시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선계로 들어간 여성이다. 그녀가 남긴 자취는 아직 향내로 남아 있는데 이 무덤에 지나갈 시인묵객들은 이 무덤이 중국 최고의 기녀 시인 설도의 무덤임을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것이 매창에 대한 허균의 시 의식이다. 매창을 기리는 허균의 시가 매우 진실 되고 아름다워 못 남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시며 진정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예의임을 깨우치게 한 弔詩다. 허균은 난폭한 남성도 아니고 함부로 여성을 대하는 조선 사대부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가 물씬 배어나는 다정다감한 남성이었다. 허균은 매창과의 관계에서 '뛰어난 시재와 정숙한 몸가짐'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허균의 평소의 몸가짐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허균은 어머니의 喪中에도 기방에 출입하여 조선조 사대부 간의 혐구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매창은 〈浮風說〉에서 교산과의 풍설을 안타까워 하기도 하였지만⁴¹⁾, 이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

고 촌은에 대한 마음 고백을 더하고 있다.

유희경은 본래는 천예출신인데 성품이 청정하고 주인 섬김에 충성스럽고 아버이 섬김도 극진하여 사대부들이 그를 좋아하였다. 시에 능해 그의 시는 순수하고 원숙된 경지였다.⁴²⁾ 이처럼 매창이 사랑한 남성은 모두 문예에 뛰어난 남성들이다. 유희경은 조선의 대시인이요, 학자요, 허균은 조선의 대 문벌의 자제로 뛰어난 문사요, 정치가인 것이다.

村隱 유희경의 문집 『촌은집』에는 매창을 그리는 시가 약 15수 되는데, 그가 매창의 명성을 듣고 만나고 싶었던 마음, 무산 신녀 같은 그녀의 진면목, 이별 후에 갖게 된 단장의 그리움 등을 시로써 표현한 것이다.⁴³⁾ 〈懷癸娘〉 〈贈癸娘〉 〈寄癸娘〉 〈途中憶癸娘〉 〈戲贈癸娘〉 등의 시에서는 촌은이 시인으로서의 매창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曾聞南國癸娘名	일찍이 남국에 계랑이름 소문나
詩韻歌詞動洛城	글숨씨 노래재주 서울까지 울리더니
今日相看眞面目	오늘에야 그 모습 대하고 보니
却疑神女下三清	선녀가 떨쳐입고 내려온 듯하다

〈贈癸娘〉

別後重逢未有期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기약 없는데
楚雲秦樹夢相思	초운 진수 그리움이 꿈속에 사무쳐
何當共倚東樓月	언제 함께 기대어 동루의 달을 보리
却話完山唐韜詩	두어라 이제는 완산 때 시나 읊자

〈寄癸娘〉

촌은은 매창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선녀에 비유한다. 뒤이어

41) “잘못이 없어도 자꾸 헛소문 떠돌아/이러쿵저러쿵 여러 입이 무섭다오”.

42) 허균, 『성수시화』.

43)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76쪽.

매창과 희롱하며 나눈 사랑도 잠시, 촌은은 서울로 돌아가 소식이 없었다. 매창은 대부분이 촌은에 대한 그리움을 읊조린다.

매창은 동시대에 두 남성의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두 남성을 사랑했다. 그러나 소문이 날 정도로 허균과는 가까웠으나 음란한 경지에는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허균과 매창은 詩友여서 진정한 友情의 교류였고, 매창과 유희경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낸 사이이다. 매창은 유희경이 서울로 간 후 돌아오지 않자 날로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의 병이 깊어져 간다. 유희경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애뜻한 사랑이었다. 그 외에 부사 이귀를 비롯한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기녀로서의 역할로 인한 관계 이상을 넘지 않았다. 매창은 평생 부끄러워 할 일은 '기녀 신분으로 사는 일'이라 자조한다. 그녀들은 남존여비의 사회체제하에서 기녀 첩을 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에 소실로 살아야 했으며 관아에 딸려 수령에게 수청을 들어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무도 지녔다.⁴⁴⁾ 사치노예로 천인계급에 속하는 그들은 富中の 여성보다도 切切한 恨을 안고 살아야 했다. 기녀는 주로 양반들과 상종하여 그들의 遊樂의 보조적 존재로서의 구실을 맡은 계층이라 名妓라면 지식인들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상당한 교양을 필요로 했다.⁴⁵⁾ 기녀가 한시와 시조를 통해 나타낸 절절함은 사치노예로서의 존재인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련과 고독이요, 다른 하나는 규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생활로 그들 나름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기녀는 천인의 신분을 타고 났기에 한 남성과 백년해로의 부부애를 누리며 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情分을 나누던 임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별을 고하며 자기를 멀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한이 발생케 된다.⁴⁶⁾

44) 김명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성 의식 고찰」, 『시조학논총』 18집, 한국시조학회, 2002, 48-9쪽.

45) 이남희, 「女流古時調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3, 18쪽.

결국, 매창도 기녀인지라 평생 애정을 지니고 상사의 정을 표출했던 유희경과의 애절한 사랑, 허균과의 우정 어린 사랑으로 남성들과 등거리 사랑을 자유롭게 펼쳤던 조선의 최초의 시인이며 기녀였다. 그녀가 기녀로 명성을 얻은 이유는 바로 이런 그녀만의 등거리 사랑에 성공했기 때문이며 품성이 바르고, 재능이 있었기에 더욱 돋보였다. 허균, 유희경 등 당대의 이름난 문인과의 등거리 사랑은 기녀인 매창을 시적 능력을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4. 나오는 말

허균은 조선조 천재 시인으로 당대를 문장으로 품미했건만 형편없는 인격체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인간됨을 살펴보면 그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서열, 여성을 두둔한 조선조 최초의 인간적인 선비였다. 특히 시 비평에 있어서 여성이 시를 쓴다는 자체를 금기시한 조선 사회에서 유일하게 시를 평가해 준 비평가이기도 하다. 그가 인정한 기녀 시인 매창은 보기 드문 여성문학을 남겼다. 역사성을 넘어, 질 높은 문학성을 성취하여 관념적인 유교의 표출이 농후했던 국문학의 흐름에서 매창 시조는 순수한 인간감정의 정치한 묘사와 절실한 표현이 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매창이 그 시대의 규범과 도덕으로부터 행방된 문학의 남긴 이유가 기녀라는 신분적인 자유로움에 있었던 것이다. 신분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순수문학을 구사하여 우리 고시조에 대한 일 반적인 선입감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매창은 기녀로서 시조, 한시 등으로 그 당시 남성들을 상대로 한 남

46) 조윤식, 「李朝女流詩歌에 나타난 恨의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77쪽.

성과의 사랑, 그러한 육욕적인 사랑을 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구절처럼,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했던 '기녀로서의 사랑'이 있었고 기녀면서 절개를 지키며 한 남자를 바라보며 '상사의 정'으로 살다 하직해야 했던 유희경과의 사랑이 있다. 이러한 절절한 사랑은 '육체와 정신이 혼합된 사랑'이라 할 수 있고 허균과의 사랑은 거리를 둔 우정 어린 사랑이라 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수없는 공간적 이별,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이별로 해서 '제한된 사랑'은 밀접했으나 가장 아픈 사랑이다. 그렇다면 허균 같은 당대의 문사들과의 10여년이나 지속되는 사랑은 문인과 문인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우정 어린 사랑' 이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서로 절제하며 사랑해야 했던 거리를 둔 사랑이었다. 사대부와 기녀 사이에서 거리를 둔 사랑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의아함 속에서도 실제, 그들은 그렇게 거리를 둔 사랑에 대해 불만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속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다정다감하며 인간에 넘치는 허균을 평가할 수 있었고, 문학을 사랑하고 혁신을 주창한 허균의 면모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기녀인 매창과 시 벗으로 교류를 가능케 한다.

매창은 절조를 강요받지 않는 기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뒤로하는 삶을 스스로 택하였다.

매창의 사랑과 허균의 자유로운 사상과 혁명은 이승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승에서 이루어 선계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공통체적인 운명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성소부부고〉 권19, 허균, 민족문화추진회, 1982.
〈학산초담〉, 허균, 『한국학자료총서』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어우아담〉, 유몽인.
〈士小節〉卷之七, 李德懋.
『朝鮮朝女流詩文學全集 1』, 許米子, 太學社, 1988.

2. 단행본

-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한남서림, 1927.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서울首都女師大, 1974.
허경진, 『허균의 시화』, 민음사, 1982.
許米子, 『李梅窓論』, 『古時調作家論』, 白山出版社, 1986.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박을수, 『시화: 사랑 그 그리움의 샘』, 아세아문화사 1994.
오명제 편, 기경부 교주, 『조선시선』, 중국요령민족출판사, 1999.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김명희,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 태학사, 1997.
김명희 외,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희, 2003.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이순구,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3. 논저

- 이신복, 『韓國 妓流文學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전원범, 『매창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문선지, 『매창한시의 이미지 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조윤식, 『조선조 女流詩歌에 나타난 恨의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이남희, 『女流古時調研究』,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오순자, 『이매창시문학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金咸得, 『朝鮮朝女人의 敎訓書〈內訓〉의 近代의 考察』, 《國文學論集》12, 단국대 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정광순, 『매창한시문학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서지영, 『조선시대 기녀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5집, 월인, 2002.

홍학회, 「여성 인식의 측면에서 본 허균의 개혁 사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6집, 2003.

김명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성 의식 고찰」,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안지영, 「기녀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Abstract>

Hu Kyoon and Maechang of Sijo

Kim Myung-Hee

Woman is individual than social, passive than active and defensive than offensive. In addition, they taught that these characters are femine in the middle ages and the feudal ages.

The closed and limited society was common to women in the feudal society. But there were many classes in women society from the humble maids to the queen in Chosun Dynasty. And Kisaeng(a singing and dancing girl) was free in comparison with the noble women. But Kisaeng were also limited as woman. They could write literary works according to the playing with poems and something like that with the men of intellectual class. But this also gave them sorrows.

In the feudal Chodun Dynasty, men recognized the noble women specially and this is the special quality of Chosun. The Confucianism which was the existense thought of Chosun, discriminated between men and women. But women studied secretly and wrote poems

pouring their thoughts and emotions. Maechang wrote many Shijo (Korean verse) with the delicacy description and the real expression. The reason Chosun woman Maechang could write Shijo which is free from the feudal limitations is that she was Kisaeng, She had a love as a Kisaeng who had to play with the intellectual men. But she loved Yu hee-kyoung. So she preserved chastity for him and waited only him. This is the love of both body and soul. And love with Hu kyoon friendship which is far from love.

The limited love because of the spatial parting and the discrepancy of the social position is the most sorrowful. 10 years love with the intellectual men such as Hu kyoon is a friendship with poems. It was not love, so they had to temperate. So they love each other as a literary friend. We can see the feminist Hu kyoon, and see Hu kyoon who loved the literature and assert the renovation. Maechang was free from the chastity but she preserved it because of her proud. She dreamed the fairyland as Hunansulhun. Because she couldn't realize love. She ended her literature and Kisaeng life at 38 years old.

There are literature of nansulhun as a noble woman and of maschang as a Kisaeng in Chosun Dynasty.

Keywords : Woman, Kisaeng, Sijo, feminism, limited society